

WCAG 3.0 초안 실무 참고자료

평가·진단·인증 실무자가 물을 만한 25가지(2026년 9월 10일 초안 기준)

요약

지금 현장 기준은 WCAG 2.2와 KWCAAG 2.2이고, 3.0으로 적합성을 판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무엇을 골라 평가할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고, 국내 평가 방법론(EM) 표준이 그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지금 위치: 2026년 9월 10일 작업 초안(Working Draft)이고 216개 항목이 모두 '개발 중'입니다. 실무그룹의 후보 권고안 목표는 2027년 4분기이고 정식 권고안 날짜는 미정입니다(질문 1·3).
- 현장 기준: WCAG 3은 WCAG 2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W3C는 지금 WCAG 2.2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라고 밝혔습니다(질문 2·24).
- 9월 초안의 변화: 적합성 수준이 하나(핵심 요구사항 전부 충족)가 되었습니다. Bronze·Silver·Gold는 3월 초안에서 A·AA·AAA처럼 적합성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적합한 뒤 얼마나 더 갖췄는지 보여 주는 보고 단계(4~6단계)입니다. 정한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평가하라는 규정(MUST)도 새로 생겼습니다(2쪽, 질문 7·8·11).
- 지금 할 수 있는 일: 평가 보고서에 검사항목별 준수율과 못 지킨 검사항목 목록을 함께 적고, 확인한 브라우저·보조기술을 버전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은 깃허브 이슈나 공개 의견 메일로 냅니다(질문 24~25).
- 구조: 핵심 요구사항 106개(모두 충족해야 적합), 보충 요구사항 74개(핵심 위에 더함), 어설션 35개(조직의 절차를 밝힘)로 나뉩니다(질문 4~6).
- 적합성과 범위: 정한 범위 안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적합합니다.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평가해야 해서, 고른 화면만으로는 사이트 전체의 적합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질문 7~10).
- 보고 단계와 영향도 태그: 보고 단계는 여섯 단계를 쌓는 구조로, 3단계가 적합성이고 4~6단계가 Bronze·Silver·Gold입니다. 1·2단계를 정할 영향도 태그(발표자 명명)는 아직 요구사항에 붙지 않았고, 보고 절은 '탐색 중'입니다(질문 11~13).
- 테스트와 어설션: 설명 문서(탐색 중)에는 테스트가 앞으로 ACT(접근성 적합성 테스트) 규칙과 비슷한 꼴로 바뀐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설션에서는 진술에 정해진 정보가 다 있지만 확인하고, 적합성에 필수로 할지는 실무그룹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질문 14~15).
- 접근성 지원: 적합성을 주장할 때는 방법이 통하는지 확인한 브라우저·보조기술·설정 조합(접근성 지원 세트)을 밝혀야 합니다. 기본 세트는 영어 콘텐츠용이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지원 세트는 대체 세트로, 개인·기관·지역 규제기관이 정할 수 있고 만드는 방법 안내는 아직 없습니다(질문 16~17).
- 국내 실무: KWCAAG 검사항목에 맞춘 공식 대응표는 없고, 인증 합격(검사항목마다 준수율 95%)과 3.0 적합성은 다른 판정입니다. 실무그룹은 정책 입안자용 안내를 따로 낼 계획입니다(질문 18~20).
- 자막·수어 등: 녹화 미디어는 자막과 대화 대본이 각각 핵심이고(국내는 자막·대본·수어 가운데 하나), 수어 통역은 보충입니다. 사용자 작성 콘텐츠(UGC)와 명도 대비 계산은 미정입니다(질문 21~23).

9월 초안에서 달라진 점(3월 3일 초안과 비교)

- 적합성 수준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3월 초안에서는 Bronze·Silver·Gold가 WCAG 2.2의 A·AA·AAA처럼 적합성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성공 기준마다 붙는 A·AA·AAA와 달리 셋 모두 핵심 요구사항 전부가 바탕이었고, 보충 요구사항과 어설션을 얼마나 더 채웠는지로 갈랐습니다(3월 초안 3.2.1). 9월 초안에서는 정한 범위 안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적합하다는 기준 하나만 남았고, 세 이름은 적합성을 넘어 얼마나 더 했는지 보여 주는 보고 단계(4~6단계)로 옮겨 갔습니다(3.2, 4.1).
- 적합성 절은 '탐색 중'에서 '개발 중'으로 올라갔고, 보고는 '탐색 중'인 별도 절(4장)로 나뉘었습니다. 초안 1.1절에는 이번 판에서 적합성을 바꿨다고 적혀 있고, 적합성과 보고를 이렇게 바꾼 것이 도입하고 쓰기에 더 나은지 묻는 질문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 핵심 요구사항마다,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피해를 표시하는 영향도 태그 네 가지(신체 피해·위험·장벽·불편)를 붙이는 안이 보고 절에 실렸습니다(4.1, 탐색 중). 3월 초안에는 이 태그가 없습니다. 개별 요구사항에는 아직 붙지 않았습니다(질문 12).
- 범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한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넣어야 한다(MUST)"가 새로 들어왔습니다(3.2.2). 사이트 전체가 적합하다고 하려면 사이트 안의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빠짐없이 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만 평가했다면 경계를 밝혀 그 일부만 범위로 주장할 수 있고(3월 초안에도 있던 내용), 그 일부가 프로세스에 속하면 그 프로세스의 화면을 모두 넣어야 합니다(용어 정의 '적합성 범위'). 범위를 좁혀 정하는 단위로는 경로·컴포넌트가 더해졌습니다(질문 9). 넓은 쪽으로는 제품, 사이트, 하위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범위로 주장할 수 있다는 문장(MAY)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3월 초안에서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페이지·뷰와 프로세스 둘뿐이었습니다. 3월 초안에는 대표 샘플링을 후보 권고안 전에 다루겠다는 편집자 주가 있었는데, 9월 초안에서는 빠졌습니다.
- 항목 수가 182개에서 216개로 늘었습니다(핵심 92에서 106, 보충 61에서 74, 어설션 28에서 35, 권장 관행 1). '모범 관행(best practice)'은 '권장 관행(recommended practice)'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위치와 일정(질문 1~3)

1. WCAG 3.0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작업 초안입니다. 가장 최근 판은 2026년 9월 10일에 나왔고, 실린 216개 항목은 모두 '개발 중'입니다. 초안 1.1절에는 완성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몇 년의 작업이 남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무그룹 일정표(위키)에는 다음 초안을 2026년 12월에 내고(조향과 접근성 지원 절 수정), 2027년 4분기에 후보 권고안(CR) 스냅샷을 내는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새 차터(실무그룹의 활동 범위와 일정을 정한 문서)의 산출물 표에도 WCAG 3.0의 완료 예상 시점이 2027년 4분기로 적혀 있고, 같은

차터에는 이번 기간의 주된 목표가 후보 권고안 스냅샷 발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식 표준인 권고안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일정표에는 그동안 후보 권고안에서 정식 발행까지 2년쯤 더 걸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2분기에 내려던 초안은 '개발 중' 적합성 모델을 담느라 9월로 늦춰졌습니다.

초안의 절마다 붙은 상태 표시는 다섯 가지입니다(1.1.2). 탐색 중(Exploratory)은 방향을 찾는 중이라 방향이 맞는지 의견을 받고, 개발 중(Developing)은 무엇이 필요한지 대략 합의했지만 큰 쟁점이 남은 상태라 쓸 만하고 합리적인지 의견을 받습니다. 폭넓은 공개 검토와 시범 적용은 그다음 상태인 다듬는 중(Refining)부터이고, 9월 초안에는 이 상태에 이른 항목이 없습니다. 나머지 둘은 임시 내용을 뜻하는 Placeholder와, 실무그룹이 권고안으로 낼 준비가 됐다고 보는 Mature입니다. 9월 초안에서 지침·요구사항·적합성 절은 '개발 중', 보고 절은 '탐색 중'입니다. 실무그룹의 2026년 목표는 '다듬는 중' 초안을 폭넓은 검토에 내는 것입니다.

2. WCAG 2.2와 KWAG 2.2는 언제까지 쓰니까?

당분간 현장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근거는 다섯입니다.

- 초안 1장 요약에는 WCAG 2가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요구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초안 1.2절에는 WCAG 3이 2.2의 뒤를 잇지만 WCAG 2를 폐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W3C WAI 소개 글(2026. 9. 25. 갱신)에는 WCAG 3이 확정된 뒤에도 몇 년 동안 WCAG 2를 폐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초안과 함께 나온 설명 문서(Explainer for WCAG 3.0) 9장에는 WCAG 3이 적어도 WCAG 2.2만큼 다루기 전에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 차터에도 후보 권고안의 조건으로 "WCAG 2.2 성공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을 다루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초안 1.2절에는 WCAG 2.2의 A·AA를 충족한 콘텐츠라면 3.0의 적합성도 대부분 충족하겠지만, 테스트가 더해지고 채점 방식이 달라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실려 있습니다.

3. 평가·보고·정책 안내는 언제 나오니까?

실무그룹 일정표에는 2026년 말까지 테스트·보고·정책 노트의 개요를 마련하고, 2026년 4분기에 범위와 보고를 검토하기 시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7년 목표에는 정책 문서의 첫 공개 초안이 들어 있고, 2027년 3분기에는 어설션이나 사용성 테스트를 다룬 노트를 낼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 차터에도 명도 대비, 어설션, 사용자 테스트처럼 먼저 무르익은 작업을 노트로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책 문서에 담길 내용은 질문 20에 있습니다.

구조와 읽는 법(질문 4~6)

4. WCAG 3.0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침 46개가 12개 영역으로 묶여 있고, 지침 아래에 세 종류의 조항이 있습니다(3.1.1).

- 핵심 요구사항(core requirement): 적합하려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MUST). 여기에는 콘텐츠를 사용자 에이전트와 보조기술이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요구, 여러 감각으로 전하고 여러 입력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요구가 듭니다. 바로 몸을 다치게 하지 않는 요구, 자막·대체 텍스트·악어 풀이처럼 꼭 필요한 지원을 두는 요구도 듭니다.
- 보충 요구사항(supplemental requirement): 핵심 위에 더하는 요구로, 적합성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보다 더 나은 접근성, 핵심 요구사항의 더 엄격한 형태, 구현 부담이 지나치게 큰 요구가 여기에 듭니다.
- 어설선(assertion): 조직이 콘텐츠나 제품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밟는 절차를 문서로 밝힌 진술입니다.

이와 별개로 권장 관행(recommended practice)이 있습니다(3.1.2). 참고용이라 적합성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9월 초안 HTML의 유형 표시를 세면 핵심 106개, 보충 74개, 어설선 35개, 권장 관행 1개로 모두 216개입니다. 12개 영역은 이미지와 미디어, 텍스트와 표현, 상호작용 컴포넌트, 입력과 조작, 오류 처리, 애니메이션과 움직임, 레이아웃, 뷰 사이의 일관성, 프로세스와 과업 완료, 정책과 보호, 도움말과 피드백, 사용자 제어입니다(영역 이름은 발표자 번역).

5. WCAG 2의 성공 기준보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검사 공수도 그만큼 늘어납니까?

초안 1.1.1절에는 까닭이 둘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만한 요구사항을 되도록 넓게 담았고, 3.0의 요구사항이 2.x의 성공 기준보다 잘게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절에는 최종 목록이 이 초안과 다를 것이고, 요구사항이 더해지거나 합쳐지거나 빠질 수 있으며, 모든 요구사항이 적합성에 쓰이지는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잘게 나눈 것이 이해와 적용에 도움이 되는지, 합치는 편이 나은지 묻는 질문도 실려 있습니다.

검사 공수가 항목 수만큼 늘어난다고 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적합성 판정에 드는 것은 핵심 요구사항 106개이고, 항목의 절반쯤에는 적용 조건이나 예외가 붙어 있어 해당 콘텐츠가 없거나 예외에 들면 볼 일이 줄어듭니다(질문 6). 공수를 더 크게 좌우하는 것은 항목 수보다 범위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전체의 적합성을 주장하려면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빠짐없이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질문 9). 다만 영상 같은 미디어는 핵심 요구사항이 국내 검사항목 2보다 많습니다(질문 21).

6. 요구사항 하나는 어떻게 읽습니까?

결과를 말하는 문장 하나에 적용 조건(Applies when)과 예외(Except when)가 따로 붙습니다. 번쩍임 핵심 요구사항이라면 먼저 번쩍임이 일반·적색 번쩍임 기준값 아래여야 한다고 적혀 있고, 콘텐츠에 번쩍임이 있을 때 적용하며, 번쩍임이 꼭 필요할 때는 예외라는 내용이 따로 붙습니다. 216개 항목의 절반쯤(109개)에 이런 적용 조건이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 형식이 이해하기 쉽고 쓸모 있는지도 1.1절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구사항을 지키는 구현 안내는 방법(method)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규범이 아니고, 기법·예시·자료·테스트를 담으며, HTML처럼 특정 기술용일 수도, 기술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설명 문서 5장). WCAG 2의 기법(techniques)과 비슷한 자리입니다.

적합성과 범위(질문 7~10)

7. 적합성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정한 범위 안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적합합니다(3.2). 충족에 쓴 방법도 접근성 지원 세트의 브라우저와 보조기술에서 실제로 통하는 것만 적합성에 인정됩니다(3장 첫머리, 질문 16). 적합성 수준은 하나뿐이고, 보충 요구사항과 어설션은 적합성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3.2절 편집자 주에는 이번 판에서 수준을 나누는 일을 적합성 판정에서 떼어 보고 쪽으로 옮겼고, 이전의 '적합성 수준'과 헷갈리지 않게 '보고 단계'라고 부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적합성 절의 편집자 주에는 표준 적합성과 법적 준수(compliance)는 같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내 품질인증 합격과 3.0 적합성도 서로 다른 판정입니다(질문 19·20).

8. 적합성 주장은 꼭 해야 합니까? 하면 무엇을 적습니까?

적합성 주장은 필수가 아닙니다(3.2.2). 주장할 때는 다음을 지킵니다.

- 범위: 제품, 사이트, 하위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처럼 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고(MAY), 범위에 든 제품, 페이지 또는 뷰, 콘텐츠, 기능, 컴포넌트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MUST). 범위가 일부라면 평가의 경계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SHOULD).
- 빠짐없이 평가: 정한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평가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MUST). 사이트 전체를 범위로 정했다면 사이트 전체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샘플 평가는 질문 9에서 다룹니다.
- 접근성 지원 세트: 방법이 통하는지 확인할 때 쓴 브라우저·보조기술·설정 조합을 적합성 주장에 넣어야 합니다(MUST, 3.2.1.1, 질문 16).

9.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샘플은 어떻게 고릅니까? 샘플 평가로도 됩니까?

범위를 좁혀 정하는 단위(limited scope)로는 페이지·뷰, 프로세스, 경로, 컴포넌트를 쓸 수 있고, 이때 경계를 알맞게 밝혀야 합니다(MUST, 3.2.2). 프로세스로 주장하면 그 프로세스를 이루는 서로 다른 화면(step)이 모두 페이지·뷰 집합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MUST). 용어 정의 '적합성 범위'에는 뷰나 페이지가 프로세스에 속하면 그 프로세스의 뷰나 페이지를 모두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에는 경로와 컴포넌트가 아직 정의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좁힌 범위마다 어떤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 적용할 수 없거나 테스트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앞으로 낼 참고 문서에서 정하겠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정의 '적합성 범위'의 주석에는 사람이나 조직이 적합성 주장에 넣을 대상을 어떻게 고르는지는 WCAG 3에서 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3월 초안에는 대표 샘플링을 후보 권고안 전에 이 초안이나 별도 문서에서 다루겠다는 편집자 주가 있었는데, 9월 초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실무그룹 일정표에는 2026년 4분기에 범위와 보고를 검토하기 시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 평가 방법론(EM) 표준이 샘플 선정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정한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평가해야 하므로, 고른 화면만으로 사이트 전체의 적합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초안 3장 요약에는 테스트한 페이지·뷰나 프로세스에 맞춰 주장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3.2.2절에는 범위 밖도 되도록 밝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증처럼 샘플로 사이트 전체를 판정하는 규칙은 국내 기준과 국내 EM이 정해야 합니다. 국내 EM에는 표준심사 지침의 선정 규칙을 옮겨 적는 방식도, 지침을 가리켜 따르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10. 뷰와 페이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앱·문서·키오스크에도 적용됩니까?

3.0은 페이지와 뷰를 함께 씁니다. 용어 정의 '페이지'의 주석에는 고유한 콘텐츠를 가리키는 주소(URI)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 적합성 단위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용어 정의 '뷰'에서 새 뷰를 가르는 기준은 나머지 콘텐츠를 계속 쓸 수 있는지입니다. 모달 창은 뒤의 콘텐츠를 쓸 수 없게 하므로 새 뷰이고, 모달이 아닌 창, 펼쳐지는 문단이나 영역, 툴팁, 토스트 알림, 펼침 메뉴, 인라인 오류 메시지는 같은 뷰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표준심사 지침」(이하 표준심사 지침)은 URL 주소를 1페이지로 세고, 레이아웃 팝업이나 탭 콘텐츠가 본문 대부분을 차지하면 2페이지로 셉니다. 같은 화면도 두 방식에서 세는 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내 EM에서 페이지 산정과 뷰를 함께 맞춰 두면 좋습니다.

적용 대상은 웹 콘텐츠와 앱입니다. WAI 소개 글에는 WCAG 3이 웹 콘텐츠, 앱, 도구, 출판, 새 기술에 적용된다고 적혀 있고, 초안 1.2절에는 데스크톱·노트북·태블릿·모바일·웨어러블 기기의 웹 콘텐츠와 가상·증강 현실을 다룬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 문서 6.3절에는 모바일 앱의 '화면'이 뷰의 예로 실려 있습니다. 다만 설명

문서 2.2절에는 웹이 아닌 기술이 범위 밖이라고 적혀 있고, 새 차터에는 소프트웨어·문서 같은 웹 밖 기술에도 되도록 넓게 적용되게 쓰지만 3.0에서 완결되지는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초안에서 폐쇄형 환경의 예(Self-Service Transaction Machines)로 나옵니다(3.2.1).

3.2.1.1절에는 폐쇄형 환경이나 웹이 아닌 기술에서, 또는 기본 세트 밖의 사용자 에이전트와 보조기술에 기대는 지역에서 적합성을 주장하면 접근성 지원 세트를 공개 접근성 성명에도 넣기를 권장한다(RECOMMEND)고 적혀 있습니다. 실무그룹 일정표의 2026년 목표에는 HTML 방법을 먼저 만든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 차터에는 모바일 앱에 WCAG 2.2를 적용하는 안내(WCAG2Mobile)를 새로 만들고 웹이 아닌 기술에 WCAG 2.1·2.2를 적용하는 안내(WCAG2ICT)를 갱신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 단계와 영향도 태그(질문 11~13)

11. 보고 단계는 무엇입니까?

적합성에 이르는 과정과 적합성 너머를 보여 주려는 단계입니다(4.1). 아래 단계를 포함해 쌓아 올립니다(4.1.4).

- 1단계 신체 피해 방지: 신체 피해·위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 2단계 기초 접근: 여기에 장벽 요구사항도 충족합니다.
- 3단계 적합성: 여기에 불편 요구사항도 충족합니다(핵심 요구사항 전부).
- 4~5단계 Bronze·Silver: 여기에 보충 요구사항과 콘텐츠 어설션(쉬운 말 검토, 사용성 테스트, 보조기술 테스트, 스타일 가이드 등)을 더합니다. 몇 개를 더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6단계 Gold: 여기에 조직 어설션(직원 접근성 교육, 공개 접근성 성명 등)을 더합니다(4.1.3).

4장 전체는 '탐색 중'이고 규범이 아닙니다. 4장 첫 편집자 주에는 실무그룹이 이 단계를 규제에 쓰는 방법을 정책 입안자에게, 제품을 비교하고 구매할 때 쓰는 방법을 조직에 따로 제안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 Silver 단계를 요구하도록 규제기관에 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2. 영향도 태그는 무엇을 뜻합니까? 오류마다 붙입니까?

핵심 요구사항마다 붙이는 안이 보고 절(4장, 탐색 중)에 실려 있습니다. 태그는 그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피해를 나타냅니다(4.1, 4.1.1). 초안에는 core requirement tags(핵심 요구사항 태그)로 적혀 있고, 이 자료에서는 영향도 태그라고 부릅니다.

- 신체 피해(physical harm): 장애인이 바로 몸을 다칠 수 있습니다.
- 위험(risk): 금전, 의료, 법률, 개인정보, 보안 위험을 지나치게 키웁니다.
- 장벽(barrier): 하던 일을 더 진행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 불편(friction): 진행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 번 겹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내 사용자 심사의 '불편 사항'(있어도 합격)과는 다른 말로, 3.0에서는 불편 태그가 붙은 핵심 요구사항까지 지켜야 적합합니다.

4.1절 편집자 주에는 오류의 심각도가 오류가 난 상황과 요구사항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므로, 같은 요구사항이라도 오류마다 심각도가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로는 요소의 역할, 오류 개수, 맥락, 콘텐츠의 중요도가 적혀 있습니다. 태그는 적합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9월 초안에는 아직 개별 요구사항에 태그가 붙지 않아, 어느 요구사항이 1단계(신체 피해 방지)와 2단계(기초 접근)에 드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국내 평가 보고서에 오류 유형별 심각도를 적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9월 초안 4.2절('탐색 중')에는 요구사항과 어설선마다 기능 수행 진술(functional performance statements) 태그를 붙여, 조직이 고칠 순서를 정하고 이 진술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안이 실려 있습니다. 목록에는 듣지 못하거나 거의 듣지 못하는 경우, 청력이 낮은 경우, 말·글·수어·그림 언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시청각장애처럼 여러 장애가 겹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에는 이 목록이 법령에서 쓰는 목록을 뺀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월 초안에서는 Bronze·Silver·Gold를 정할 때 이 진술마다 보충 요구사항과 어설선을 일정 부분 채우게 했는데, 9월 초안에서는 이 진술이 보고를 다루는 4장으로 옮겨 갔습니다.

13. 점수 방식은 없어졌습니까?

대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4.1절 편집자 주에는 진척을 점수로 보여 주고 적합성 뒤에 Bronze·Silver·Gold를 주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 나은지 공개 의견을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 문서 7.1절의 대안에서는 충족한 조항에 가중치를 줍니다. 신체 피해·위험은 3, 장벽은 2, 불편과 그 밖의 조항은 1이고, 가중치를 모두 더한 값 가운데 충족한 가중치의 비율을 점수로 씁니다.

테스트와 어설선(질문 14~15)

14. 테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 도구와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설명 문서 6장('탐색 중')에는 테스트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량 테스트(quantifiable)는 평가자가 달라도 결과가 거의 같은 테스트로, 어떤 속성이 있는지가 맞는지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성 테스트(qualitative)는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판단하는 테스트로, 대체 텍스트가 뜻을 제대로 전하는지가 예입니다. 정성 테스트는 평가자마다 결과가 갈릴 수 있고, 분명한 안내로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 차터에는 요구사항 하나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참고용 테스트 절차 하나 이상, 방법 둘 이상, ACT(접근성 적합성 테스트) 규칙 하나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ACT 규칙 형식 1.1은 2026년 2월 5일 W3C 권고안이 되었고, 차터에는 이 형식이 자동 검사 도구와 수동 검사 방법에 쓰는 테스트 규칙의 형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차터에는 3.0용 예비 테스트 규칙을 내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설명 문서 6.2절에는 초안의 테스트가 앞으로 몇 차례 발행을 거치며 ACT 규칙과 비슷한 형태로 바뀐다고 적혀 있고, 초안 1.2절에는 3.0이 브라우저·보조기술, 저작 도구, 테스트 도구 같은 관련 도구도 다룬다고 적혀 있습니다.

15. 어설션은 평가자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육이나 전담 인력도 들어갑니까?

절차의 결과는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설명 문서 6.5절에는 어설션 진술의 질은 문서화 요건을 얼마나 갖췄는지로 테스트하고, 적합성을 위해 뒷받침 기록을 테스트하지는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직이 어설션으로 밝힌 절차에 맞춰 기록 요건을 더 둘 수는 있습니다. 어설션을 적합성에 필수로 할지는 실무그룹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4.1.3 편집자 주).

초안의 예시 하나는 자막 사용성 테스트 어설션입니다. 공개할 정보로는 진술한 사람이나 기관, 테스트 날짜, 진술 날짜가 적혀 있고, 범위와 참여자의 장애 유형·인원, 찾은 문제는 권장 내부 기록(참고용)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시 기록에는 농인 5명과 난청인 3명이 참여했고, 화자가 바뀐 곳 표시와 배경 음악 설명 같은 문제를 고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 문서 5.3.1절에는 어설션으로 밝힐 수 있는 절차의 예로 접근성 교육, 전담 인력(FTE) 배정, 역량 시험, 접근성 절차의 조율과 문서화, 고칠 순서 정하기가 실려 있습니다. 2.2.3 Clear language 지침의 검토 어설션(Clear language review) 권장 내부 기록에는 작성자 교육을 한 날짜와 교육을 마친 작성자 수나 비율이 들어 있습니다. 설명 문서 5.3.2절에는 작은 조직이 지나친 부담 없이 어설션을 쓰는 방법을 묻는 질문도 실려 있습니다.

접근성 지원(질문 16~17)

16. 접근성 지원 세트는 무엇입니까? 보조기술 버그는 어떻게 봅니까?

방법이 실제로 통하는지 확인할 때 쓰는 브라우저·보조기술·접근성 설정의 조합입니다(3.2.1.1). 3.2.1절에는 ARIA나 CSS를 쓰는 방법처럼 사용자가 실제로 쓰는 사용자 에이전트와 보조기술이 지원해야 효과가 있는 방법이 많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이 쓰는 사용자 에이전트와 보조기술은 언어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방화벽 안이나 키오스크 같은 폐쇄형 환경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 기본 세트: 영어 콘텐츠를 지원하는 흔한 브라우저·보조기술·설정입니다. 웹 방법을 지원하고, 모바일이나 확장 현실(XR)용 세트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발행 시점에 기본 웹 세트에서 통하는 방법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만 핵심 요구사항으로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체 세트: 기본 세트가 그 언어·지역·기술을 지원하지 못할 때 개인, 기관, 지역 규제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 세트는 대체 세트입니다.

3.2.1.1절 편집자 주에는 기본 세트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체 세트를 만드는 방법은 참고 문서로 안내해야 하고, 세트를 시간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은 더 논의해야 하며, 보조기술과 브라우저에 오래 남은 버그를 예외로 들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새 차터의 정책 안내 주제에도 버그 처리가 들어 있습니다(질문 20). 같은 차터에는 '접근성 지원 세트 요건' 문서를 내겠다는 계획과 함께, 실무그룹이 접근성 지원 데이터의 중앙 저장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범위 밖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설명 문서 7.3절에 따르면 적합성(보고 단계 3)에서는 WCAG 3이 내놓은 방법이 통한다고 볼 수 있고, 실무그룹은 국제적으로 넓게 지원되는 방법을 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세트는 그보다 높은 단계에서 쓰지만 적합성 주장에도 넣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초안 3.2.1.1의 기본 세트는 영어 콘텐츠를 지원하는 조합이고, 그 기본 세트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디. 그래서 한국어 지원 세트를 누가, 어떤 버전으로, 얼마나 자주 고칠지는 W3C 문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17. 한글처럼 비라틴 문자는 어떻게 됩니까?

초안 2장 편집자 주에는 범위를 더 분명히 정하고 여러 언어·문화·문자 체계에 올바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많은 요구사항에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글자 모양을 다루는 핵심 요구사항(글꼴, 글자 크기, 자간, 줄 높이, 여백, 줄 길이 등)은 기준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디(2.2.1).

2.2.1 지침 편집자 주에 따르면 줄 높이와 간격 같은 조항은 라틴 문자와 비라틴 문자 모두에 맞아야 해서 비라틴 문자·언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무그룹은 문자·언어별 측정값을 규범으로 두되, 측정값을 더할 때마다 3.0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같은 편집자 주). 새 차터에는 지원 문서로 '비라틴 문자 측정값을 지원하는 틀'을 내고, 문자·언어별 가독성 측정값의 등록부와 권고안을 낼 수도 있으며, 그 결과를 나중에 WCAG 2에도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지침의 요구사항 여섯 개(핵심 넷, 보충 둘)에는 이 분야 연구, 특히 비라틴 문자 연구를 공개 의견 메일로 보내 달라는 편집자 주가 붙어 있습니다. 한글 측정값과 연구 자료는 지금도 실무그룹에 의견으로 낼 수 있습니다.

국내 실무와 견주기(질문 18~20)

18. KWACG 33개 검사항목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직 공식 대응표가 없습니다. 항목 수와 이름이 초안마다 바뀌고(3월 182개, 9월 216개) 모두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설명 문서 5.2절에는 핵심 요구사항이 WCAG 2.2 AA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은 범위를 다루게 된다고 적혀 있고, 5장('탐색 중')에는 조항에 인식·운용·이해·견고성 태그를 붙여 WCAG 2와 같은 구조로 다시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 차터에는 후보 권고안과 함께 'WCAG 2와 WCAG 3의 대응' 문서를

내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포 자료 부록 2 같은 대응표에 초안 날짜를 함께 적고 판마다 고쳐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19. 국내 품질인증 심사와 무엇이 다른니까?

- 기준과 판정: 국내 전문가 심사는 KWCAAG 2.2의 33개 검사항목마다 준수율 95%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3.0은 정한 범위 안의 핵심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참여: 국내는 사용자 심사가 필수입니다(신규 3인 이상으로 전맹, 저시력, 지체(상지)·뇌병변 유형을 반드시 넣고, 과업 10개 이상). 청각장애 유형은 필수 유형에 없습니다. 3.0에서 사용성 테스트와 보조기술 테스트는 어설편이고, 적합성에 필수가 아닙니다.
- 단위와 샘플: 국내는 URL 1페이지를 단위로 규모별 심사 페이지 수와 유형별 우선순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3.0은 페이지·뷰와 프로세스를 쓰고, 고르는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환경: 국내 전문가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브라우저로, 사용자 심사는 장애 유형별 환경으로 봅니다. 3.0은 접근성 지원 세트를 적합성 주장에 밝혀야 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배포 자료 부록 3에 있습니다.

20. 국내 인증과 KWCAAG에 3.0을 들이려면 W3C에서 무엇이 나오니까?

실무그룹은 3.0을 정책에 쓰는 안내를 따로 낼 계획입니다.

- 이행: 초안 1.2절에는 3.0으로 옮기려는 조직을 위해 이행 지원 자료를 내고, 대응표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WAI 소개 글에도 3.0이 더 안정되면 WCAG 2에서 3으로 옮기는 안내를 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질문 2·18).
- 정책 문서: 초안 3장 첫머리에는 정책 입안자가 정책을 쓸 때 3.0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참고 안내를 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새 차터에는 후보 권고안을 뒷받침할 문서로 'WCAG를 정책이나 규제에 넣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다룰 주제는 제3자 콘텐츠, 버그 처리, 새 기술, 크거나 자주 바뀌는 콘텐츠의 적합성이고, 그룹 노트라서 제안만 하고 공식 요건은 만들지 않습니다(같은 차터). 실무그룹 일정표의 2027년 목표에는 정책 문서의 첫 공개 초안이 들어 있습니다(질문 3).
- 정책이 고를 수 있는 것: 4.1.4절 편집자 주에는 표준으로서 WCAG는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적합으로 보고, 정책 입안자는 상황에 따라 그 위 단계를 더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 문서 5.2절에는 평가자나 정책 입안자가 지킬 보충 요구사항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충 요구사항 'Common words used'의 주석에는 이 요구사항이 앞으로 낼 정책 입안자용 안내에서 공공 서비스·교육 기관에 의무로 둘 수 있는 요구의 예라고 적혀 있습니다. Silver 단계를 요구하는 규제의 예는 질문 11에 있습니다.
- 평가 주체: 새 차터에는 실무그룹이 적합성 평가나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제별로 자주 묻는 것(질문 21~23)

21. 자막·대본·수어와 청각장애인 참여는 3.0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월 초안에는 대본(트랜스크립트), 자막, 수어 지침이 따로 있고 모두 '개발 중'입니다(2.1.4, 2.1.5, 2.1.7). 세 지침에 핵심 14개, 보충 10개, 어설션 7개가 있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요구사항: 녹화·생방송 자막 제공, 녹화 자막의 동등성, 자막 동기화, 자막의 소리 표시, 녹화·생방송 대화 대본 제공, 대본을 미디어 옆에 두기, 녹화 대본의 동등성, 화면 정보까지 담은 설명 대본. 음성 입력 지침(2.4.4)에도 실시간 양방향 음성 소통에 실시간 문자 선택지를 두라는 핵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보충 요구사항: 녹화 콘텐츠의 수어 통역 제공(대상과 지역에 가장 알맞은 주된 수어로), 수어 통역 켜고 끄기, 자막 모양 조정과 켜고 끄기, 화자 표시
- 어설션: 현장·혼합·온라인 행사와 회의의 수어 통역 정책, 자막·대본 사용성 테스트, 자막·대본 스타일 가이드
- 국내와 다른 점: 국내 검사항목 2(자막 제공)는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막, 대본, 수어 가운데 하나를 제공하면 준수로 봅니다(표준심사 지침). 9월 초안에서는 녹화 미디어에 자막과 대화 대본을 각각 두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고, 녹화 영상의 화면해설(audio description)도 핵심 요구사항입니다(2.1.4~2.1.6).
- 사용자 참여: 국내 사용자 심사의 필수 유형에는 청각장애가 없습니다(질문 19). 3.0에서 사용성 테스트는 어설션이고, 자막 사용성 테스트 어설션의 예시에는 농인 5명과 난청인 3명이 참여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질문 15). 사용자 심사의 참여 유형을 어떻게 적을지는 국내 EM이 정할 수 있습니다.

22. 게시판 글처럼 사용자가 쓴 콘텐츠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문서 8장은 Placeholder(임시 내용) 상태입니다. 8장에는 사용자 작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에 접근성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적합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8.1절에는 문제가 있거나 미리 대비하려면, 그 콘텐츠가 있는 곳과 접근성을 높이려고 취한 조치(예: 이미지를 올리기 전에 대체 텍스트를 묻기)를 콘텐츠 옆이나 링크한 접근성 설명에 밝힌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용자 작성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지와 받아들일 최소 기준은 앞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고, 대체 텍스트처럼 지침마다 다른 요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 검사항목 2도 사용자가 올린 멀티미디어에 관리자가 대체 수단 입력 기능을 두지 않으면 오류로 봅니다(오류 유형 2-3).

23. 명도 대비 계산 방식은 바뀔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월 초안의 텍스트 명도 대비 핵심 요구사항('개발 중')에는 대비 기준값 자리가 '정할 예정'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 핵심 요구사항과 같은 이름의 보충 요구사항(enhanced)에 함께 붙은 편집자 주에는 대비 알고리즘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이번 초안은 글자 크기·굵기를 함께 보는 알고리즘을 가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무그룹 일정표에는 명도 대비 계산 방식(일정표 표기는 color algorithm)을 다룬 노트를 낼지

검토했지만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 차터에도 명도 대비 작업이 무르익으면 노트로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의견 내기(질문 24~25)

24. 지금 진단과 인증 실무에서 해 볼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0 적합성 판정을 내기는 아직 이릅니다. 216개 항목이 모두 '개발 중'이고, 영향도 태그가 개별 요구사항에 붙지 않아 어느 요구사항이 보고 단계 1·2단계에 드는지 알 수 없으며, 기본 지원 세트도 정해지지 않았습니(질문 1·12·16). WAI 소개 글에는 앞으로 WCAG 3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 지금 WCAG 2.2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3.0이 쓰는 개념 몇 가지는 지금 평가 기록에 먼저 담아 둘 수 있습니다.

- 검사항목별 준수율과 함께 못 지킨 검사항목의 목록을 적습니다. 인증 합격선(95%)과 3.0식 판정(모두 충족해야 적합)을 한 보고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질문 7·19).
- 확인한 브라우저와 보조기술을 버전까지 남깁니다. 3.0의 접근성 지원 세트와 같은 취지의 기록입니다. WCAG-EM 2.0에서도 평가 전에 접근성 지원 기준선(브라우저·보조기술 조합, Step 1.3)을 정합니다.
- 평가 범위를 프로세스 단위로 적어 둡니다. 회원가입, 신청, 결제처럼 화면이 이어지는 서비스를 한 프로세스로 기록합니다.
- 오류 유형별 심각도를 함께 적습니다. 영향도 태그(질문 12)와 견줄 수 있는 기록이 쌓입니다.
- 용어는 영문과 국문을 나란히 둔 표로 관리합니다. 초안마다 이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국내 EM에 넣을지는 표준 작업에서 정할 일입니다.

25. W3C에 의견은 어떻게 냅니까?

실무그룹은 WCAG 3 깃허브 저장소의 이슈나 공개 의견 메일(public-agwg-comments@w3.org)로 의견을 받습니다(1.1). 주제마다 이슈를 따로 만들고, 메일은 첨부 대신 본문에 쓰라고 적혀 있습니다. 9월 초안 1.1절에 실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루지 못한 사용자 요구가 있는가
- 적용 조건과 예외 형식이 이해하기 쉽고 쓸모 있는가
- 요구사항을 잘게 나눈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합치는 편이 나은가
- 적합성과 보고를 바꾼 것이 도입하고 쓰기에 더 나은가

적합성 모델을 묻는 질문은 WAI 소개 글에 따로 있다고 같은 절에 적혀 있습니다. 소개 글의 질문은 셋입니다.

적합성 수준을 하나로 두고 태그로 그 아래위 보고 단계를 나눈 방식이 이전 초안보다 나은가, 설명 문서의 점수 대안과 견주어 두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내 일에서 보고 단계를 어떻게 쓰겠는가입니다.

한국어 지원 세트, 비라틴 문자, 국내 인증 경험(사용자 심사, 오류 판정)은 국내 실무자가 의견으로 낼 수 있습니다.

출처(확인일 2026. 10. 13.)

이 자료는 권기표(대구사이버대학교 정보화지원팀)가 2026. 10. 16.(금) 디지털접근성표준화포럼 서비스분과 회의에서 발표한 「WCAG 3.0 초안이 평가 방법에 묻는 것」의 부록입니다. 본문에서 '배포 자료'는 그 발표의 배포용 PDF입니다. 아래 문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초안의 절 번호는 괄호에 넣었고, 이 자료의 다른 질문은 '질문 12'처럼 적었습니다. 용어 번역은 발표자 시안이고, 배포 자료 부록 2의 대응표와 겹치는 용어는 그 표와 같습니다.

- W3C, WCAG 3.0 Working Draft(2026. 9. 10.)
<https://www.w3.org/TR/2026/WD-wcag-3.0-20260910/>
- W3C, WCAG 3.0 Working Draft(2026. 3. 3., 비교용)
<https://www.w3.org/TR/2026/WD-wcag-3.0-20260303/>
- W3C, Explainer for WCAG 3.0(그룹 노트 초안, 2026. 9. 10.)
<https://www.w3.org/TR/2026/DNOTE-wcag-3.0-explainer-20260910/>
- W3C WAI, WCAG 3 Introduction(2026. 9. 25. 갱신)
<https://www.w3.org/WAI/standards-guidelines/wcag/wcag3-intro/>
- W3C, AG WG 새 차터(승인 전, 2026. 6.) <https://www.w3.org/2026/06/ag-wg-charter.html>
- w3c/wcag3 위키 Schedule(실무그룹 작업 문서) <https://github.com/w3c/wcag3/wiki/Schedule>
- W3C, WCAG-EM 2.0 Group Note(2026. 7. 23.)
<https://www.w3.org/TR/2026/NOTE-wcag-em-2-20260723/>
- W3C, ACT Rules Format 1.1(2026. 2. 5.)
<https://www.w3.org/TR/2026/REC-act-rules-format-1.1-20260205/>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표준심사 지침(2024. 12., 2025. 1. 1. 시행)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2022. 12. 28.)